

태풍 ‘곤파스’ 강타 강풍·폭우 초비상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 제7호 태풍 ‘곤파스(compass의 일본어)’가 2일 새벽 광주·전남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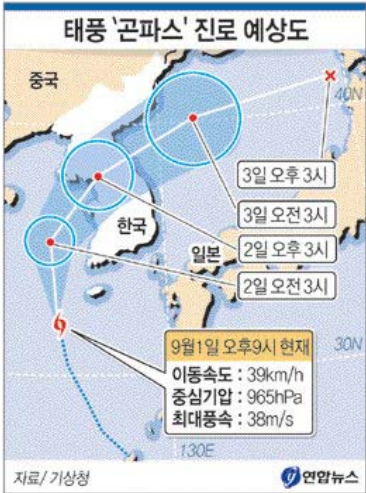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각 시·군·구는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일 오후 6시를 기해 광주시와 전남 22개 시·군에 태풍주의보를 발효했다. 또 남해서부와 서해남부 전 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되면서 목포와 여수, 완도항과 전남 섬 지역을 잇는 55개 항로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지리산 등은 2일 자정까지 입산이 통제됐다.

이번 태풍은 강한 비바람으로 큰 피해를 준 1999년 태풍 ‘율가’와 2000년 ‘프라피룬’처럼 서해를 거쳐 상륙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예상된다.

태풍 곤파스는 2일 새벽 3시께 목포 서북서쪽 약 20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북북서쪽 약 70km 부근 육상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날 광주·전남 지역에



60~150mm(전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등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예정이며,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었다. 태풍은 3일 새벽 3시께 독도 북쪽 약 330km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간 이날 오후 3시께 일본 삿포로 남서쪽 해상으로 이동해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은 2일 밤부터 점차 꺾 것으로 예상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오늘밤 개막

세계인의 미술 축제 제8회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가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12면〉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2일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 앞 야외광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인 강운태 광주시장 등 각계 인사와 시민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는다.

이날 개막식에는 베니스비엔날레 비스 큐리거 총감독과 참여작가인 이데사 헨델레스, 마우리치오 카탈란, 신디 셔먼 등 유명 작가와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광주비엔날레 사상 처음으로 공식 개막 하루 전날 치러지는 이번 개막식은 다채로운 식전행사와 공연이 결

여진다. 음악양상블 ‘바람꽃’, 비엔날레 홍보대사인 펠레라 가수 로즈장이 무대에 서며 안은미컬러니가 전시 주제인 만인보를 인용해 ‘광인보’ 퍼포먼스를 펼친다.

또 이날 개막식에서는 광주비엔날레가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눈(Noon)예술상’의 첫 수상자를 발표한다. 참여작가 가운데 수상자 2명을 선정, 예술상 수상자에게는 1만달러, 후원상 수상자에게는 5000달러의 상금을 수여한다.

한편 이번 비엔날레는 ‘만인보’를 주제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민속박물관, 양동시장 등지에서 열리며 31개국 134명의 작가들이 500여점을 선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태풍 영향권 서두른 귀가

제7호 태풍 ‘곤파스’(컴퍼스의 일본어)의 북상으로 1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입구에서 시민들이 서둘러 귀가하고 있다. 곤파스는 강한 비바람으로 큰 피해를 준 1999년 태풍 ‘율가’와 2000년 ‘프라피룬’처럼 서해를 거쳐 상륙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예상된다.

/나명주기자 mjna@

2014년 서울~광주 1시간11분

KTX망 2020년까지 구축...전국 2시간 생활권

오는 2014년까지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11분이면 갈 수 있게 된다. 2012년 개발되는 최고시속 430km의 차세대 고속열차가 호남고속철도에 도입되는 등 미래 KTX고속철도망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이는 1시간31분이 소요되는 기존 고속철도보다 20분, 현재 소요시간인 2시간52분에 비해서는 1시간41분을 앞당기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전남과 수도권이 3시간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경제·문화·사회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역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1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에 따르면 광주~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30분대(평균 1시간대)로 연결해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된다.

2017년 완공 목표(오송~광주는 2014년까지)인 호남고속철도(용산~목포, 352.5km)는 애초 1시간45분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고속철도 신선(수서~평택) 10분, 열차속도(시속 300km에서 350km) 향상 7분, 승강장 개량 및 신호개선 7분 등 모두 24분이 단축돼 1시간21분에 가능하게 된다. 열차속도가 시속 350km에서 400km가 될 경우 6분이 더

KTX 주요 도시간 이동시간 비교		
구간	현재	KTX망 구축시
서울~광주	2:52	1:11
대전~광주	1:55	1:03
대전~목포	2:15	1:13
대구~광주	2:53	1:35
부산~광주	4:02	1:40
광주~강릉	8:29	2:19
서울~목포	3:13	1:21
익산~목포	1:20	0:32
서울~여수	5:15	2:05
익산~여수	2:28	1:16
서울~광양	5:05	2:00
익산~광양	2:13	1:11

줄어든다.

전라선과 경전선 등 현재 건설·운영 중인 지선도 선로 직선화·신호 등 일부 시설을 개량해 최대시속 230km까지 고속화되면서 고속철도 서비스가 광주·목포뿐만 아니라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지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128.6km)은 오는 11월, 대전·대구 도심구간(41km)은 2014년 각각 완공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부산(417.57km)은 1시간43분으로 가까워진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의욕 좋지만 조금해서는 안돼 현 교육감 의사결정 존중해야”

광주시의장, 시교육감 당선자에 ‘훈계’

전교조 출신인 윤봉근<사진> 광주시의회 의장이 전교조 광주시지부장을 역임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에게 ‘훈계’를 했다.

윤 의장은 1일 오전 열린 제19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오는 11월7일 취임할 장휘국 당선자 측의 최근 몇 가지 행보에 일반 시민들이 다소 염려스러운 점을 느끼고 있다”며 “지난 9일 광주시교육위원회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장 당선자와 일부 방청객의 태도는 시민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또 “장 당선자의 인수위가 각급 학교 현장을 방문해 학교장과 마찰을 일으킨 것도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추경예산 편성을 둘러싼 현 교육감과 당선자 측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고, 당선자 인수위 관계자들이 일선 학교를 돌며 편성된 추경예산을 취소하거나 반납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월권’ 아니냐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윤 의장은 이어 “당선자 측이 광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의욕적으로



조례하는 것은 광주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당선자는 너무 조금 해 하지 말고 임기개시 전까지 현 교육감의 의사결정이나 집행을 존중하고 협조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봉근 의장의 발언은 사상 건전 갈등을 빚고 있는 현 교육감과 당선자 측에 대해 같은 전교조 출신의 예정 어린 총고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등 일부 지역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윤 의장이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당선된 장 당선자에 대해 ‘사건 견제’ 차원에서 쓴소리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는 사랑하고 있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와 의지함으로 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혼자 마음에만 갇혀있을 때가 많고, 때로는, 국화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KUKI PHARM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비타민 A, C, E의 보급

- 면역력 강화, 심혈관 질환 예방
- 피부 노화 방지, 노년기
- 눈의 건조함 완화, 다중
- 암·당뇨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피) 제거
- 피부 노화, 노년기, 노년기
- 알코올·담배·약물·스트레스 등에 의한
- 노화·노년기, 노년기, 노년기

이연의 보급

**국제-에이스
큐텐** 안정
효과